

지구촌 양계뉴스

일본

야생오리 분변에서 H5N1 검출

일본 환경성은 지난 10월 14일 홋카이도 와카나이시 오누마에서 회수한 야생 오리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가 검출되었으며, 현재까지 사망한 야생 조류는 확인되지 않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지난 10월 26일 발표했다.

- 일본 환경성

한국 닭고기 수입 중단

일본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병과 관련, 한국의 닭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지난 10월 19일 지지(時事)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한국의 충남 예산 오리 농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것과 관련, 한국으로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의 수입을 10월 18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이와 함께 일본 내 47개 도·도·부·현에 AI 바이러스 침입 방지에 만전

을 기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15일 충남 예산에서 AI 바이러스 항원(저병원성)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뒤따른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2007년 11월 AI 발생을 이유로 한국산 닭고기 등 가금류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뒤, 지난해 수입 재개와 수입 중단을 거듭했고, 지난 5월 다시 한국산 닭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해제한 바 있다.

일본의 한국 닭고기 수입량은 2006년 당시 약 1,300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0.2%를 차지했다.

- tvreport.co.kr

미국

'스트레스 없는 닭고기' 나온다

방목한 닭고기, 항생제 없는 닭고기, 유기농 닭고기 등에 이어 '스트레스 없는 닭고기'가 미국에서 등장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프리미엄 닭고기업체 벨&에번스와 캘리포니아의 메리스 치킨이 닭을 '자비로운' 방식으

로 도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 10월 22일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우선 계사 내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해 닭들이 기절하게 한 뒤 닭들을 거꾸로 매달아 목을 베는 방식이다.

벨&에번스의 오너인 스콧 세클러는 “닭을 잡아서 거꾸로 매달아 줄을 세우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면서 “우리 시스템은 닭들이 스트레스 없이 잠들게 하고 우리도 스트레스 없이 닭을 죽일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이 수술 전 마취를 하는 것처럼 닭이 죽기 전에 조용히 잠들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콜로라도 주립대 템플 그랜던 교수는 “조류는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싫어하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이 시스템은 닭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게 한다는 점에서 한결 나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두 업체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300만달러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벨&에번스는 내년 4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한 닭고기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메리스 치킨을 소유한 데이비드 피트먼은 동물이 어떤 방식으로 도살됐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닭고기 포장에 ‘자비롭게 도살된’ 또는 ‘자비롭게 처리된’ 등의 표현

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욕=연합뉴스

동원
정호
정호
정호

‘닭고기 분쟁’ WTO 결정 수용

미국이 중국과의 닭고기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상소 없이 수용키로 했다.

미국은 지난 9월 29일 WTO의 결정 이후 WTO의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결정 수용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의명을 요구한 WTO 관계자가 지난 10월 25일 전했다.

통상 WTO에서의 무역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는 상소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미국이 상소를 포기하고 WTO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미국이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국제 무역규정에 위배됐고 중국에 손실을 끼쳤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무역 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다.

미국과 중국은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상대국의 가금류 수입을 중단했지만, 미국의 일부 제품 수입재개를 시작한 중국과 달리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미국과 중국은 닭고기뿐만 아니라 강관을 비롯한 철강 제품, 지적재산권 문제 등 각종

분야에서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다.

- 아주경제

육류가격 곧 상승 전망

미국 옥수수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0월 11일 전망했다.

FT는 미국 농무부의 작황 통계를 인용해 에이커(약 4000m²)당 평균 옥수수 수확량이 155.8부셸로 지난달 추정치보다 6.7부셸 줄었다고 전했다. 미국 축산협회의 그레그 더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 영향이 엄청나(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월간 옥수수 수확량에서 사상 최대의 변동폭이며,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우려했다.

가축의 주요 사료원인 옥수수 가격은 작황 부진에 따라 부셸당 60센트 오른 4.6~5.4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2007~2008년 사육 비용 상승으로 고기용 가축 수도 크게 줄었다.

미 축산협회 더드는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오르면 육류 가격이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타이슨 푸드 주가가 10월 8일 거의 8% 급락하는 등 육류업계에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

- FT

뉴질랜드

정부 검사관 통한 육류검사제 폐지 고려 중

뉴질랜드식품안전청(NZFSA)은 정부 소속 검사관을 통한 육류 검사 시스템 대신 육류 회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양고기의 품질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모든 육류는 정부 육류 검사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NZFSA는 향후 6개월에 걸쳐 일부 육류 회사를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 TV NZ

중국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세

세계 주요 선물시장에서 대두, 옥수수, 설탕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국면을 이어가자 결국 식용류, 육류 및 과자류 제품도 일제히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해 일반 서민들의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난 10월 20일 경제참고보가 보도했다.

베이징시 평타이(豊台)구의 한 농부산물시

장에서는 5리터들이 대두유 1통 가격이 1주일 전까지만 해도 48위안이었으나 어느새 50위안으로 인상됐다.

베이징시 신파디(新發地)농산물도매시장 통계부 책임자는 9월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10% 이상 인상됐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수입 대두 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중국 대두 시장은 국제 시장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지난주 11월 대두 선물 가격은 12달러에 육박해 14개월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해관(海關=세관)총서의 발표에 의하면 수입 대두 가격은 3개월간 연속 상승했다.

미국 농업부 보고서는 중국의 2010/2011년 대두 수입량이 5,500만 톤으로 예상돼 2009/2010년의 5,050만 톤보다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업발전연구소 리귀상(李國祥) 연구원은 중국의 대두와 식용류 시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 시장에서 대두 값이 인상되면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지금은 소비가 가장 왕성할 때인데다 만일 기상 이변이 생겨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두유 외에 옥수수유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중국 최대 옥수수유 생산업체인 시왕(西王)식품 왕홍위(王紅雨) 총경리는 5리터들이 옥수수유 가격이 10위안 인상됐는데 원인은 바로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생산 원가가

증가된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년 들어 중국의 옥수수 가격은 상승-하락-재 상승으로 이어지는 국면인데 다롄(大連)의 옥수수 선물시장 가격은 금주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카고 옥수수 선물시장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금년도 미국 옥수수 공급량이 의외로 부족 현상을 보이자 가축 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연이어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가격의 주요 인상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유엔 식량기구가 일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옥수수 등 농산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세계 육류 가격지수가 199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목축업협회 마창(馬關) 부비서장은 옥수수 가격 상승은 이미 기정 사실이며 이에 따라 육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축산 농가가 생산수준을 제고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원가 상승에 따른 압력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귀상 연구원은 주요 농산품과 관련 식품 가격은 보통 함께 등락하기 마련이라면서 예로써 대두 값은 식용유에, 옥수수 값은 돼지고기 값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최종 제품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아주경제

독일

축사 의무 규정 철회될 예정

독일 포커스지는 독일 연방농업부의 조류 인플루엔자-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금류의 축사의무 규정이 철회되고 동시에 닭, 오리, 거위의 방사형 사육이 다시 허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금류의 축사의무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이유로 도입된 것이며, 독일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2009년 3월 Starnberg지방의 야생 오리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 FOCUS지

호주

유기농 가금류에 성장촉진제 오염

호주 최대 인증기관이 인정한 유기농 닭고기와 계란 중에 다른 인증기관이 사용금지하고, 유럽 및 미국이 단계적으로 사용금지시킨 가축 성장촉진제(DL-methionine)가 함유된 것이 알려졌다.

작년 호주 전체 8개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새로운 국내기준을 마련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업계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

호주검역청(Austral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은 수출용 식품에 합성 메티오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중단시킬 예정이다.

- Sydney Morning Herald

캐나다

생물안전 조치로 가금류 보호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10월 18일 철새 이동기간으로 가금류 생산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생물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가금 생산자들은 종종 야생조류에 의해 전파되는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가금 무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 정기적으로 생물안전 조치 실행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가금을 보호할 수 있다.

AI 및 뉴캐슬병은 야생 조류에 존재하고 있으며 조류에서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류, 사료 및 음수를 야생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CFIA